

독서감상문 지도법

수업 목표 : 독서감상문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수업 내용 : 처음 독서감상문을 지도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 자신의 느낌 붙잡는 법, 독서감상문 쓰기의 여러 가지 방법, 아이들 글을 읽고 평가하는 법, 고학년의 독서감상문 지도에 대해 구체로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용명입니다. 지금부터 독서감상문 지도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독서감상문이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책을 읽고서 나의 생각과 느낌을 적는 글을 말합니다. 그런데 독서감상문 쓰기는 정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독서감상문을 써 보자고 하면 한숨을 푹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숨을 푹 쉬는 아이들은 ‘독서감상문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써야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즉, 독서감상문이란 대체로 ‘책 읽은 동기, 줄거리,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하는, 긴 글’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에 한숨을 내쉬는 것이지요. 책 읽은 동기가 주로 어른들이 읽으라고 해서 읽게 된 경우가 많으므로 ‘선생님이(또는 엄마가) 읽으라고 해서 읽게 되었다.’하는 정도입니다. 또 이야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책을 펴고 처음 문장을 베끼고 중간쯤 문장을 베끼고 마지막을 베끼다거나 책의 마지막에 요약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베끼기도 하지요. 느낀 점은 재미있었다, 혹은 재미없었다, 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쓰면 어른들이 다시 쓰라고 하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서감상문 쓰기가 고역이 될 수밖에요.

***선생님부터 욕심내지 말고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독서감상문을 즐겁게 쓰려면, 쓰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것은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뜻이지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다소 서툴더라도 목소리 연기를 하면서 읽어주면 재미있어 합니다. 즐겁게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책 속에 빠져들어서 책 속 인물이 되어 보고, 자신이 경험한 비슷한 경우를 떠올려보기도 해야 살아있는 자신만의 독서감상문을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재미있게 읽고 난 뒤에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주로 책 속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요. 이 때 아이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구체로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느낌 먼저 쓰고 줄거리를 구체로 잡아내기

‘학교에 간 개돌이’를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읽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12월쯤에는 아이들에게 꼭 읽어줍니다. 이 책의 배경이 눈 내리는 겨울이고 설정이 정말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개가 아이를 따라 학교에 가서 일어나는 일을 개의 시선으로 그린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등장인물들이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데 개도 사투리를 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작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학교’라는 곳을 작가가 개입하여 무조건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이 있는 곳이라거나 직접 공부해야 하는 곳이라는 이분법의 사고로 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렸지만 마지막까지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책입니다. 책의 주인공은 준우라는 개구쟁이 아이와 개돌이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준우네 개인 개돌이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전에 우리나라 지도를 그립니다. 먼저 서울을 알게 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천을(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알게 합니다. 부산을 알게 하고, 크게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를 알게 합니다. 지방 사투리를 특징만 잡아 조금 들려주고, 그런 다음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들인데(전라도의 위치를 가리키고) 이런 사투리를 쓴다며 책을 읽어줍니다. 약간 과장되게 책을 읽어 나가면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책상을 두드리며 웃습니다. 미리 읽었던 아이도 몹시 즐거워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이렇게 즐겁게 책을 읽고 난 뒤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준우는 어떤 아이 같아?

-(잠깐 생각하다가) 나쁜 아이요, (대체로 처음에는 착하다, 나쁘다, 하는 이분법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컵라면 살 돈으로 비눗방울을 샀으니까요.

-그래? 그러면 혹시 너희들 중에 엄마 몰래 엄마 돈으로 과자 사먹은 적 있는 사람?

-(손드는 아이는 조금 있고, 없어요 하는 아이도 있고)

-야, 정말 착구나. 선생님은 말이야 어려서 엄마 돈으로 몰래 과자 사먹은 적이 있거든. 그리고 새 공책 쓰고 싶어서 다 쓰지도 않은 공책을 다 썼다고 거짓말 한 적도 있다. 히히.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며 손드는 아이가 있다.)

-엄마 돈으로 몰래 과자 사먹은 적 있는 사람? (여러 명이 손을 든다.)

-그러면 너희도 나쁜 아이들이네? (아이들을 콕, 찌어 가리키며)너, 너, 나쁜 아이지?

-아니에요.(강하게 부정한다.)

-왜?

-(한 번만 그랬어요, 착할 때도 있어요, 한 번 그랬다고 나쁜 아이예요? 하는 아이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준우는 어떤 아이 같아?

-(뭘라 대답할지 몰라 한다)

-(씩 웃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할 때는 무조건 착해요, 나빠요, 하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은 착해요, 어떤 것은 나빠요, 이렇게 얘기를 해 보자,

이런 식으로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아이들 말이 쏟아집니다.

-준우가 컵라면 살 돈으로 비눗방울 산 것은 나빴어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고 글도 잘 못 읽는 것을 보니 공부를 못하는 애 같아요, 벌서면서 비눗방울 부는 것은 개구쟁이예요, 개돌이가 준우의 발을 밟은 것이 더럽기는 하지만 주인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준우 선생님은 처음에는 나쁜 선생님인줄 알았는데 준우가 컵라면 안 가져왔을 때 컵라면을 주어서 좋은 선생님 같아요, 나도 우리 강아지를 학교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다음 '독서감상문을 쓰자'라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학교에 간 개돌이 정말 재미있었지?

-네,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들을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 보자, 나는 개돌이를 어떻게 생각한다, 준우를 어떻게 생각한다, 준우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길게 써요?

-선생님은 길게 쓰라는 말은 안 한다,

-(좋아하면서)아, 짧게?

-선생님은 짧게 쓰라는 말도 안 한다,

-그럼, 중간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나의 마음을 다 해서, 길게 쓰는 것도 좋아, 왜 좋을까?

-잘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 아주 열심히 한다는 뜻이거든, 그렇지만 힘들면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쓰면 돼, 그런데 얘들아,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 것이니까 '나는 개돌이가 참 귀엽다, 끝-' 이렇게 쓰면 될까?

-아니요,

-왜?

-개돌이가 왜 귀여운지를 써야 돼요,

-그렇지, 똑똑하네, 개돌이가 한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 귀엽다, 이렇게 써야겠지?

-네,

그리고 글쓰기를 합니다.

학교에 간 개돌이

김혜연 (상일초3)

개돌이는 정말 바보같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준우따라 간 것이다. 그런데 준우네반 선생님께서는 준우를 혼내시지 않으셨다. 난 그런 선생님이 좋긴 하는데 참 이상하다. 그리고 준우는 장난감을 사가져 갔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걸 보시고 장난감을 뺏으셨다. 그러고 나서 교장선생님께서 나오시니 그 선생님께서는 언능 교실로 돌려보내셨다.

또한 준우는 컵라면을 같이 끓여먹는데 컵라면 살돈을 장난감을 샀는데도 선생님은 안 혼내셨다. 선생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컵라면을 준우에게 주셨다. 난 그런 선생님이 무척 좋다. 선생님께서는 남은 국물을 달라고 하며 개돌이를 줬다. 개돌이는 다 먹고나서 선생님께 감사 표시를 하였다. 난 우리 강아지가 바보같지만 교육을 시키면 될꺼라고 마음가짐을 했다. (2004. 1. 2)

학교에 간 개돌이

배준우(부천석천초 2)

이 글의 주인공은 박준우다. 나는 배준우인데. 선생님이 읽어주실 때 깜짝 놀랐다. 그리고 개가 말을 하다니. 그것도 사투리로 해서 재미있었다. 개돌이는 박준우의 개다. 나도 강아지가 있으면 좋겠다. (2004. 1. 2)

학교에 간 개돌이

장성욱 (부천상일초2)

이책에 주인공은 개돌이와 준우다. 난 이야기를 듣고나니 신기한점을 발견했다. 뭐냐하면 개와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다. 난 그게 참 신기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난 나쁘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준우의 물건을 뺏어서 자기가 갖고 노니까 선생님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준우는 착하다고 생각한다. 음식도 나눠먹고 인사도 잘 하니까 난 준우가 착하다고 생각한다. (1. 2.)

학교에 간 개돌이

최정은(부천상일초2)

이 책의 주인공은 개돌이와 준우다. 이 책을 선생님께서 읽어주셨는데 사투리로 말하는게 너무 웃기고 재미있었다. 준우네 선생님은 어린 아이같다. 왜냐면 준우에서 뺀 비눗방울 갔다(갓고) 자기가 아이들이 안보는 사이 붙어서이다. 개돌이는 똑똑한거 같다. 왜냐면 복도가 공부시간에는 조용한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강아지가 개돌이를 조금이라도 본받았으면 좋겠다. 준우는 공부시간에 장난을 잘 치기 때문에 장난꾸러기같다. 그래도 착하다. 개돌이가 학교로 같이 따라가는데 말리지 않아서이다. 책이 정말 재미있고 계속 읽어도 질리지 않아서 난 이책이 정말 좋다. (2004. 1. 2.)

학교에 간 개돌이

김민철(부천석천초3)

이책의 주인공은 개돌이와 준우다. 이책을 어떻게 읽게 되었냐면 글쓰기 선생님이 읽어주셔서 읽게되었다. 이 책에 내용은 아침에 준우가 학교에 가는데 강아지 개돌이가 학교에 가서 장난치는 것이다. 준우가 학교에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선생님이 강아지를 집에 돌려보내라고 하셨다. 하지만 집까지 거리는 너무 멀어서 그냥 복도에 양전히 있으라고 했다. 준우는 엄마가 준 돈으로 오늘 학교 준비물이 컵라면이라서 컵라면을 사라고 준 돈인데 비누방울을 사서 선생님께 혼이 났다. 3교시가 컵라면 먹는 시간인데 준우는 비누방울을 사서 컵라면을 못 먹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컵라면을 주셔서 먹게되고 애들이 먹다 남은 라면을 개돌이에게 주어서 개돌이는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고 개돌이와 함께 달리기 시합을 했다. 그리고 내가 준우와 비슷한 점은 개구쟁이인거다. (2004. 1. 2.)

민철이는 저와 방학에 4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책 읽은 동기를 써야한다는 생각이 굳어있는지 글을 쓸 때 마다 꼭 동기를 썼습니다. 이럴 때는 굳이 동기를 쓰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책 읽은 동기를 쓰지 않고도 재미있게 잘 쓴 또래 친구들의 글을 읽어 줍니다. 스스로 깨닫도록(눈치 채도록) 말이지요.

아이들이 쓴 글을 읽어 보니 어떨까요? 독서감상문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분은 ‘예게? 이게 독서감상문이야?’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여드린 글들은 오랫동안 공부한 ‘최종 결과물로서의 독서감상문’이 아니라,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독서감상문’입니다. 2학년인 배준우는 책 읽는 것을 즐겨하지 않고, 독서감상문이라는 것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고 써 본 적도 많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에게 어른의 눈높이에 있는 ‘최종 결과물로서의 독서감상문’을 바라는 것은 무리이지요. 아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를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젓 먹는 아기에게 빨리 크기를 바란다고 밥 한 공기를 먹일 수는 없지요. 배준우는 그냥 책 속 주인공이 자기 이름과 같은 ‘준우’라는 게 신기한 것만 알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결과물로서의 독서감상문’은 언제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배워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독서감상문’ 쓰기를 충분하면 저절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감상문의 형식은 없다.**

처음으로 독서감상문에 대해 공부할 때는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반드시 줄거리를 쓰지 않아도, 길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책을 재미있게 읽고, 내가 생각나는 것을 정리하는 정도로 공부합니다. 글의 갈래를 쓸 때 도 ‘독서감상문’이라는 말 대신에 ‘책을 읽고’라는 말로 쓰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이들에게 ‘독서감상문을 써 보자’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아이들이 쓴 글을 ‘독서감상문’이라 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독서감상문’이라는 말 때문에 또 한숨을 푹 쉰다거나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표정으로 막막해 합니다. 그 때 아이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애들아, 오늘은 독서감상문 쓰기를 해 볼 거야,

-어휴…,

-왜 그래?

-독서감상문 쓰는 거 싫어요,

-그래? 독서감상문이 뭔데?

-책을 읽고요 줄거리 쓰고 느낌 쓰고 하는 거요,

-그렇구나,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을 쓰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지?

-(좀 아는 아이들이) 먼저 책을 읽은 동기 쓰고요 줄거리 쓰고 느낌을 쓰는 거예요, 느낌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고, 꼭, 동기도 쓰고 줄거리 쓰고 느낌 쓰고 해야 하니?

-(약간 머뭇머뭇)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러면?

-주인공한테 편지를 써도 되구요...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같은 것도 쓰구요,

-그래, 그런데 애들아, 독서감상문 쓰는 것 쉬워, 어려워?

-(큰 소리로) 어려워요,

-선생님이 오늘 ‘독서감상문’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봐, 독서감상문은 책을 읽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대로 쓰면 돼, 쉽지?

-(어리둥절한 표정)

-독서감상문은 '이렇게 써야 한다, 저렇게 써야 한다' 하는 형식이 없어, 내 마음 대로 쓰는 거야,

-(계속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어리둥절한 표정)

-그러면 독서감상문을 쓸 때, 왜 책을 읽은 동기 쓰고,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쓰고 줄거리 쓰고 느낌을 쓰라고 하는 걸까?

-몰라요,

-그건 말이야, 독서감상문이란 책을 읽고 내 마음 대로 쓰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 대로 써야할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책을 읽은 동기를 써도 좋고, 책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써도 좋고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도 좋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써야한다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내 생각을 쓰는 것이 훨씬 훌륭한 거야, 여태까지 너희들이 '책을 읽고' 쓴 글들 있잖아, 그게 바로 독서감상문이야,

이렇게 아이들에게 '독서감상문의 형식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여 마음을 편하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독서감상문의 형식은 무형식이 형식입니다. 간혹 학부모님들이 상담을 할 때 아이가 독서감상문 쓰는 방법을 모른다면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독서감상문 쓰는 법에 따라 글을 쓰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 부모님 역시 독서감상문이란 책을 읽은 동기, 줄거리, 느낌을 써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글을 쓰지 않으니까 '애는 독서감상문 쓰는 방법을 모른다'거나 '애는 독서감상문 쓰는 법에 따라 글을 쓰지 않아.' 하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독서감상문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은 그런 틀에 맞게 글을 써야한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세요.

저는 서사문을 나 스스로 집짓기에 비유를 하고, 독서감상문은 누군가 지어놓은 집을 뼈대만 그대로 두고 허물었다가 내 방식으로 집을 꾸미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서사문이란 나 스스로 뼈대도 세우고 살도 붙이고 하여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글로 쓴다면, 놀이터에서 그네를 탔다거나 모래 장난하며 논 것이 뼈대가 되겠지요. 거기에 살을 붙여 누구랑 놀았는지, 놀 때 무슨 일이 생겼는지 하는 것들을 덧붙여 글을 쓰게 됩니다. 즉 자세히 쓰기,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쓰기를 하며 내용이 선명해지도록 글을 씁니다. 그러나 독서감상문은 누군가 지어놓은 집을 뼈대(줄거리)만 남긴 뒤 내 식으로 다시 집을 꾸미는 것입니다. 내 식으로 집을 꾸밀 때, 반드시 TV는 거실 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요? 집에 TV가 없으면 안 되는 걸까요? 다시 말하면 이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 읽은 동기는 꼭 처음에 써야 하나요? 그리고 책 읽은 동기가 꼭 있어야 하나요? 물론 그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도 이렇게 저렇게 꾸며보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취향에 맞게 꾸밀 수도 있으니까요. 막 결혼한 신부의 집 꾸미기에 대

해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할지 모르지요.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모르고 필수 혼수품이라고 하는 것을 다 장만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사려면 몹시 버겁겠지요. 그러다가 조연도 구하고 어른들의 말씀도 듣습니다. 마치 완벽하게 독서감상문을 쓰려고 찢찢 매다가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비슷하지요.(물론 신부는 자신이 주체이고, 독서감상문 쓰기에서는 아이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실정 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TV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거실 한 가운데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어른이 있는가 하면, TV 없어도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집 꾸미기를 원하는 어른들도 있지요. 교사가 막힌 사고를 하느냐, 열린 사고를 하느냐 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위의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를 조금 더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아, 독서감상문을 쓸 때는 책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내 생각대로 쓰면 돼, 책의 내용은 어떻게 연결지을까?

-물라요,

-나의 마음을 쓸 때 왜 그런지를 밝히면 그게 바로 책의 내용과 연결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간 개돌이를 읽고 글을 쓰려고 해, 내가 동화를 읽어보니까 개돌이가 참 충성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개돌이는 참 충성스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런데 개돌이가 왜 충성스럽다고 생각한 지를 쓰면, 그게 바로 책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쓰는 거야, 이 아이는 왜 개돌이가 충성스럽다고 생각했을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대체로 책의 내용을 유추해 냅니다.) 개돌이가 준우를 잘 따라다녀서요, 준우 발 시려울까 봐 발가락을 핏아 주어서요...

-그렇구나, 개돌이를 충성스럽다고 생각한 친구가 이렇게 썼네, 한번 들어 볼래? (앞부분 생략)준우가 실내화도 안 신고 양말에 구멍이 나서 개돌이가 준우에 발가락을 핏아 줄 때에는 충성스러워 보였다, 그런데 더럽지 않을까? 준우가 숙제를 안 했을 때에는 게으름뱅이 같았다, 숙제는 안하고 놀기만 하니 말이다, 준우는 밖에선 대장이지만 학교에선 대장이 아닌 가보다, 나도 학교에선 대장이지만 집에선 막내라 대장이 아니다, 준우와 개가 꼭 친구 같다, 나도 이런 개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어때?

-(고개를 끄덕끄덕)

-애들아, 독서감상문 쓰는 것은 글쓰기 가운데 가장 힘든 공부야, 그 힘든 것을 너희들이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정말 대단한 거지,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것을 떠나서 너희들이 힘든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대단해, 힘들지만 힘을 내서 한번 해 볼까?

-(싫어요,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로 힘들지만 한번 해 보자, 하는 분위기로 흐릅니다. '해 보자'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이 진짜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처음에는 무조건 책의 상황에 공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깨닫지요. ‘짜장, 짬뽕, 탕수육’의 경우 ‘너라면 거기 자리에서 오줌을 누겠니?’ 하고 물어보니 많은 아이들이 자기는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누겠다고 하면서 책 속의 아이들이 이상하다고 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전학 온 아이를 놀리지 않는다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그 경우에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생각을 쓰도록 합니다. 아래 글들은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것을 부분만 뽑아서 실은 것입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 종민이는 놀림을 받았다. 섭섭하겠다. 전학을 왔으면 잘해주어야지. 그래서 나도 짜증난다. 우리반은 아무리 전학을 와도 잘해주는데 왜 이 책은 이럴까? 궁금하다.

- 큰 덩치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자기가 대장인 줄만 안다. 그래서 변기통을 보고 큰소리로 왕! 거지! 왕! 거지! 이러면서 거지자리에서 누는 사람은 거지라고 놀린다. 왜 남자아이들은 그렇게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그랬다고 다 거진가? 대관절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 와, 종민이는 괴돌이네. 내가 저런 상황일 때 용기를 내어서 당당하게 행동하겠다. 난 종민이가 용기 있고 자신감 있는 아이인 것 같다.

<나쁜 어린이표>

- 이 책은 황선미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다. 주인공은 준우이다. 준우는 선생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를 안 해 보아서 그런 것이라고 눈에 확 들어왔다.

- 제목을 보았을 땐 재미없을 것 같았지만 재미있진 않았다.

- 나쁜 어린이표를 읽었다. 6살 때 읽을 때에는 재미가 없어서 대충 그림만 보고 쓱쓱 지나갔는데 이제는 알겠다. 건우의 마음을 잘 알겠다. 건우는 억울하다. 왜냐면 학기 첫날부터 어떤 아이가 밀어서 화분을 깨뜨려서 나쁜어린이표를 처음으로

받은 아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쁜 어린이표’를 읽고

장 예 은

‘나쁜 어린이표’는 5번을 읽어도 지루하지 않은 책이다. 처음엔 학급문고에서 읽었는데 정말 재미있어서 사게 되었다.

이 책의 주인공 건우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 나쁜 어린이표 때문이다. 나쁜 어린이표를 받을 만한 일을 하는 아이들은 안 혼나고 건우만 걸리니 말이다. 또 선생님은 건우만 나쁜 어린이 표를 주는 것 같기 때문이다. 솔직히 건우는 나쁜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선생님과 사이가 멀었던 것 같다.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건우가 나쁜 선생님 표를 쓰고 선생님이 그것을 발견하고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나도 고마웠다. 나도 처음엔 선생님이 미웠기 때문이다. 정말 어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어른들이 앞 뒤 상황을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다.

‘돼지책’을 읽고서

이상아(부천신도초3)

돼지책을 읽었다. 재미도 있었는데 남편과 아이들은 “밥 줘.” 그러곤 자기들은 밥만 먹는다. 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아저씨가 싫었다. 남편은 돈만 벌어주면서 아내가 집안일을 다한다. 그러는데 남편은 부인한테 너무 힘들게 해서 부인이 이런 편지를 썼다. “너희들은 돼지야.” 이렇게 편지에 써있었다. 그러곤 부인은 없어졌다. 엄마가 불쌍했다. 그래서 집은 온통 돼지우리였다. 밥이 다 떨어지자 밥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문이 덜컥 열리더니 부인이 있었다. 식구들은 막 엄마를 돕고 아빠도 도와서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너무 행복했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났다.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했는데 이 책처럼 되면 바로 짐을 쌀 거다.

*입장 바꾸어 생각해 보기

수업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보겠습니다. ‘나쁜 어린이표’를 아이들과 읽었어요.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어떤 아이가 있는데 청소 시간에 청소는 안 하고 화분을 깨뜨렸어. 그 아

이는 어떤 아이 같아?

-나쁜 아이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대체로 아이들은 이분법으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공부를 여러 번 하다 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요?' 하고 상황을 묻지요, 여기서는 처음 공부하는 아이들과 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쁜 아이지, 너희들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혼내죠, 야단치지요, 개네 엄마한테 화분 사오라고 해요,

-그렇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막 야단쳤어, 왜 화분을 깨뜨렸냐고, 그 아이 마음이 어떨까?

-기분 나빠요, 속상해요, 울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왜 화분을 깨뜨렸는지 알아? 애가 대걸레를 들고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애가 밀었거든, 그래서 넘어지면서 화분을 깨뜨린 거야,(이쯤에서 책을 읽은 아이는 '어? 나쁜 어린이표인데?' 하고 아는 척을 합니다.) 아무튼 화분을 깨뜨렸으니까 나쁜 아이지?

-아니요, 그건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아이 기분이 어떨까?

-억울해요, 진짜 기분 나빠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분이야?

-나빠요, -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왜 선생님한테 말을 못했을까?

-말대꾸한다고 더 혼나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책을 읽어오라고 하지요. 그리고 책을 읽고 난 뒤에도 마찬가지로 맨 처음 말씀드린 방법으로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쁜 어린이표'는 책을 읽고 나의 생각 쓰기를 해도 좋고, 책 속 다른 인물이 되어 일기 쓰기를 해도 재미있어합니다.

<주인공 바꾸기> - 나쁜 어린이표

경식이의 일기

이찬화(부천오정초3)

나는 우리 반 반장이다. 반장인 만큼 난 똑똑하고 공부도 잘 한다. 그래서 항상 착한 어린이표를 받았다. 그런데 과학경진대회날 아침 학교에서 건우가 드라이버를 갖고와서 막 자랑을 하는 것이다. 마침 연필깎기가 고장나서 내 드라이버로 고치려고 했는데 귀찮아서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 한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

하나 못하겠느냐고 달라고 하니까 시비를 거는 것이다.

결국 나는 선생님께 혼나고 나쁜 어린이표를 받게 됐다. 이 때 건우 녀석을 때리고 싶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쁜 채로 과학실로 갔고 신경이 쓰여서 완성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선 작품을 완성하지도 못하고 나쁜 어린이표를 받아서 혼이 났다. 기회가 오면 난 복수를 할 것이다.

<주인공 바꾸기> - 학교에 간 개돌이

수진이의 일기

이지원 (부천대명초 2)

나는 개를 진짜 진짜 싫어한다. 내 짝꿍은 준우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학교에 일찍 갔다. 웬일인지 학교 갈 때 기분이 더욱 좋았다. 그런데 나의 중요한 행복은 금방 없어졌다. 문을 ‘드르륵’ 여는 순간 내 짝꿍 옆으로 주루룩 친구들이 있었다. 나는 친구의 사이의 틈을 노려보아서 재빨리 갔다. 그 순간 ‘아악’ 소리를 질렀다. 내 앞에 못생긴 개가 내 얼굴을 ‘헤,헤’ 빨고 있었다. 징그러웠다. 나도 다음에 준우한테 물폭포로 복수를 할 것이다.

지원이는 준우의 짝꿍을 ‘수진’이라는 아이로 정했습니다. 책 속에는 등장하지도 않은 아이를 등장시킨 것, 그것이 참 기특합니다. 찬화도 그렇고 지원이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 ‘복수를 할 것이다’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말이 좀 걸리지요? 그러나 아이들이 생각하는 ‘복수’란 것은 어른이 생각하는 그것과 많이 다릅니다. 그저 자기가 당한 것이 억울하니깐 나도 너를 골탕 먹이겠다, 하는 정도이지요. 그것은 애나 어른이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보편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나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고 ‘너도 저번에 그랬잖아’하면서 씩 웃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그걸 ‘복수’라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의외로 ‘복수’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럴 때 저는 아이들에게 ‘복수라는 말은 무서운 말이니깐 쓰지 마’, 라거나 ‘이런 말 쓰는 게 아냐.’ 하지 않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써야 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옛날이야기 한 토막, 예를 들어 부모의 원한을 갚기 위해 상대를 죽이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런 경우에 ‘복수’라는 말을 쓴다고 얘기해 주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복수가 그 정도니?’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때 적절한 말을 아이들과 함께 찾기를 합니다. ‘골탕을 먹인다, 가만 안 두겠다’하는 정도의 말을 찾습니다.

‘나쁜 어린이표’와 함께 읽고 얘기를 나누기 좋은 것으로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습니다. 이 책은 읽은 뒤 다른 작품으로 패러디하는 것도 재미있어합니다.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아이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늑대'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

-무서워요, 나빠요, 감사해요, 교활해요, 싫어요, 못 생겼어요,

-그러면 '늑대' 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기분 나쁘겠지요, 뭐, 짜증나겠지요,

-어떤 아이가 '나' 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 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개, 진짜 나쁜 아이다, 얼굴도 못 생기고 못된 짓만 해,'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가만 안 뒤요, 죽여 패버려요, (몹시 분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선입견'이나 '오해'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 합니다.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작품으로 패러디 하기를 해보았습니다.

늑대가 들려주는 빨강 망토 이야기

나 늑대가 어떻게 살아있냐고? 하느님이 불쌍하다고 살려주셨지. 아무튼 불공평해. 니네들은 날 나쁜 늑대로 알았지? 내가 안 나쁜단 증거로 월래 이야기를 가리켜 주지.

나는 숲속에서 놀고 있었지. 그러다 빨강 망토를 두른 아이가 맛있는 걸 들고 가고 있었지. 난 이 숲속으로 이사 안 왔을 때였지. 난 동물들이 안 놀아조서 친구가 없어서 그 아이한테 말을 시킨 거야. 그리고 갈라고 하니 섭섭해서 빨강망토 아이를 따라갔지. 그런데 어제 12시까지 TV를 본 다음 잠을 잤기 때문에 큰 하품이 나오는 거였어. 나무꾼 아저씨가 날 나쁜 놈인줄 알아서 이랬지. “이 놈 늑대. 썩 물러가라.”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도끼를 휘둘렀지. 난 죽기 싫어서 도망갔지. 다행히 빨강망토 아이는 못 들어서 다행히 날 아직 착한 늑대인 줄 알았지. 빨강망토를 두른 아이는 얼마 안 가서 꽃을 땀지.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나는 감동받았지. 할머니를 사랑하는 빨강망토에 마음을 말아야. 난 용기를 내어 나랑 친구가 되어줘 라고 말할려고 뛰어갔지. 그런데 그만 토끼뎃에 발이 걸려 버렸지. 빨강망토아이는 꽃을 다 따고 가서 내 일을 몰랐지. 나는 다행히 손톱 덕분에 살았지. 나는 너무너무 빨강망토아子和 친구가 되고 싶어 머리를 찢지. 난 이렇게 말했지. “아! 맞다. 그러고 보니 산속에 감기가 걸린 할머니가 있으시던데, 그 집으로 가면 되겠다. 여긴 그 할머니 밖에 안 살거든.” 나는 그 할머니덱으로 얼른 뛰어 갔어. 나는 문을 푹!푹!푹! 두드렸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빨강망토니?”이랬지. 나는 “늑대예요.”라고 말하면 안 열어줄 꺼 같아서 빨강망토아이 소리로 “네”했지.

그런데 그때 내가 아주 아주 큰 하품을 한 다음 입을 다댔지. 그런데 할머니를 삼켜버렸지. 나는 어쩔수 없이 배보고 이렇게 말했지. 죄송해요, 하고 했지. (늑대 그림을 그리고 ‘죄송해요’라는 말을 여러번 썼네요.) 내가 잠이 자고 싶어서 할머니 잠옷을 입었지. 내가 침대에 누울 때 빨강망토가 문을 두드렸지. 나는 할머니 소리를 냈지. “빨강망토야, 들어오렴.”이랬지. 빨강망토는 할머니를 좋아하니까 행복하라고 빨강망토를 먹었지. 사냥꾼이 이걸보고 날 죽였지. 그러구선 꺼냈지. 할머니랑 빨강망토를. 날 믿을 수 있겠지.

이 글은 부천 중흥초등학교에 다니던 심은빛이라는 1학년 아이가 2학년이 되기 직전에 쓴 글입니다. 맞춤법도 틀린 곳이 있고 말이 부드럽게 연결되지 않기도 하지만, 읽어 보니 참 재미있어요. 꽤 긴 분량의 글인데요, 아이가 신이 나서 쓰지 않으면 이렇게 길게 글을 쓰기 어렵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등장인물을 주인공의 자리로 옮겨보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삶이란 ‘인간과 인간이 얹히고설켜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저런 인간관계에 얹혀있기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괴롭기도 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동화를 포함한 모든 문학 작품이 따지고 보면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사랑과 화해를 주제로 하는 것이겠지요. 아이들에게 주인공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삶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함과 동시에 감수성을 훈련하는 공부가 아닐까 합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독서감상문

‘자기만 알던 거인’을 읽고

최 정 은 (부천상일초 2)

나는 거인이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나중에 거인은 아이를 나무에 앉혀 주고는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난 거인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거인은 친구네 집에서 7년동안 살았을까? 거인한테 7년이 7일 일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하다. 거인은 욕심이 너무 많다. 난 그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될 것이다. (11. 28.)

이 책은 ‘행복한 왕자’를 쓴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입니다. 저도 어려서 교과서에 이 글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2학년인지 3학년인지,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글인데요 교과서의 종이 질감도 느껴지고 촌스러운 삽화가 어렴풋이 기억나서(물론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슬며시 웃음이 납니다.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거인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아이들이 자기 집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내쫓으니 거인의 집에는 추운 겨울만 계속 되지요. 어느 날 정원에 봄이 찾아와서 거인이 깜짝 놀라 나가보니 꼬마 한 명이 거인의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거인은 그 꼬마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자 거인의 정원에 봄이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은이는 이 책을 읽고 ‘거인이 친구네 집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중에서 ‘거인이 친구 집에서 7년 동안 살다가 온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7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인의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되었니?’ 하고 되묻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독서교육의 목표가 독서감상문을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라면 아이가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쓰더라도 그걸 지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은이가 얼마나 아이다운가요? 정은이는 아마 이 동화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것에 대해 피식 웃으며 어린 날의 추억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조그만 크면 알게 되겠지요. 어른들이 아이의 즐거운 추억을 싹뚝 잘라내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학교 신문이나 교지에 실리는 글, 대회에서 상 타는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많은 학부모들은 학교 신문에 실린 글이나 교지에 실린 글, 독후감 대회에서 상 탄 글을 잘 된 글이라고 믿고 있으며, 거기에 잣대를 들이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도 글이 실리기를 바라는 분들도 계시구요. 물론 신문이나 교지에 글이 실리는 것, 그리고 대회에서 상 타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바람직하게 글이 실리거나 뽑혀야겠지요. 아이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이 활자화 되었을 때, 아이에게 분명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감도 있고 뽑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신감도 얻을 것이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제 글이 교지에 실렸을 때의 그 이상한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연필로 썼던 글이 깨끗하게 인쇄되어 있는데 마치 제가 쓴 글이 아닌 것 같더군요. 옆에 삽화도 있어서 더욱 근사해 보이고 그래서 우쭐했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저를 글 잘 쓰는 아이로 인정해 준 것도 있고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 글을 써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은 제가 맡았고, 글을 쓰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참고 해 낸 만큼 성취감도 느끼고 더 자란 내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글쓰기의 목표를 신

문이나 교지에 실리는 것, 혹은 상 타는 것에 두지 마라는 것입니다.

아래의 글은 학교 교지에 실린 한 어린이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네 자매의 행복

가난하지만 서로 도와 열심히 살아가는 네 자매의 행복이 넘치는 천사같은 마음씨가 잘 그려지고 있는 점이 이 책의 줄거리다.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세 동생을 보살펴 주는 메그, 책읽기를 좋아하고 꾸밈없는 둘째 언니 죠, 피아노와 남을 잘 돌보아 주는 셋째 언니 베스, 그림을 잘 그리는 귀여운 막내 에이미, 이 네 자매는 생김새와 성격, 그리고 재주도 다르지만 사귀고 싶은 친구들이다. 특히 몸이 많이 아팠지만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느라 쓰러진 베스 언니의 착한 마음씨에 감명받아 내 마음속의 시기와 질투심이 사르르 녹는 것처럼 가슴이 후련해지기까지 했다. 그런데 한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부자인 로렌스씨 덕에서 가난한 훔멜 부인과 아이들을 돌보아 주었으면 했는데, 네 자매만 보살펴 주었다. 물론 로렌스 할아버지와 로리의 호의에 감사는 드리지만 훔멜 부인 집에도 찾아가서 병으로 힘든 부인을 위로 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아이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스의 품에 안겨 죽은 아이도 의사에게 빨리 치료를 받도록 했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밖에도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다. 특히 가난한 속에서도 착하게 살고, 밝은 생활로 네 자매가 용기를 얻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읽고 나도 네 자매처럼 아름다운 마음씨로 살아가야지,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 며칠이 못 가서 개구쟁이가 되고 만다.

또 그림을 잘 그리는 막내 에이미는 내 동생하고 똑같다. 귀엽고 예쁜 내 동생과 가끔은 다투기도, 질투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아씨들처럼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고 있다.

난 그 중에도 로리와 춤을 춘 죠와 친해지고 싶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난 멋쟁이이고 예뻐 보이고 싶고 친구들 앞에서 제일 잘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끔 옷가지고 짜증을 내면 엄마에게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로리처럼 멋진 남자와 예쁜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가서 춤을 춰 보고 싶기도 하다.

우리 집도 작은 아씨들의 가정처럼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고 싶다. 네 자매를 우리 집에 초대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학교, 놀이터 또 소꿉놀이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싶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다.

오늘밤 꿈속에서 작은 아씨들을 만나서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으면 좋겠다.

위의 글은 ‘작은 아씨들’이란 책을 읽고 부친의 한 초등학생이 쓴 독후감입니다. 몇 학년짜리 아이가 쓴 글 같은가요? 교지에 실린 것을 보니 1학년짜리 아이의 글

입니다. 1학년 아이가 쓴 글이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요리조리 따져 읽을 필요도 없이 위 글은 어른이 써 준 글이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주는 문제점을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독서감상문에 대해 잘 모르는 학부모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독서감상문에 대해 잘 아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모르는 학부모들은 이 글을 읽고 감탄을 합니다. ‘세상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지? 어쩌면 이렇게 생각이 깊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쓸 수 있지?’ 여기서 그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애는 아주 아기네, 아기.’ 하면서 자신의 자녀를 깎아내리고 때로는 ‘이것 좀 봐라. 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하면서 아이의 자존심을 짓밟기도 합니다. 결국 평범한 아이에게 그 피해가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반드시 이러지는 않겠지만, 늘 누군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주기를 바라고, 바람직하지 않은 헛된 명예에 집착하는 아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아이에게는 좋은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스스로 바랐던 것이 아니니까요. 아이가 자라서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위의 경우처럼 어른이 쓴 글이 실리기도 하지만, 아이가 솔직히 자신의 이야기를 잘 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특별히 잘 쓰지 않았는데 학교 신문에 실리기도 있어요. 그러니 그걸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건의 줄기를 따라가다가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지점에서 글쓰기**

이제까지 자신이 느낀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하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부담 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공부를 하는 한편, 사건의 줄기를(줄거리) 찾는 공부도 틈틈이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는 공부도 처음에는 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글쓰기를 할 때, 중요한 사건만(줄거리) 잡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이때는 우선 말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역할은 ‘이음말’로 연결하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려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짧은 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겁 많은 토끼’라는 짧은 옛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애들아, 처음에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지?

-옛날에 겁 많은 토끼가 살았어요,

-그러지, 여기에서 ‘겁이 많은 토끼’가 중요할까, 그냥 ‘토끼’가 중요할까?

-(반반 정도로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는 토끼가 겁이 많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지? 겁이 많아서 사건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지?

-야자수 밑에서 잠을 자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토끼가 야자수 밑에서 잠을 잔 것이 중요한 걸까, 자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중요한 걸까?

-자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요.

-그렇지, 자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깬 것이 중요하지, 그래서 토끼가?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는?

-사슴, 코끼리, 원숭이, 기린이 같이 달아났어요.

-사슴, 코끼리, 원숭이, 기린을 다 합해서 그냥 뭐라고 하지?

-동물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도 도망갔다고 하면 되겠네? 그 때?

-숲 속의 왕인 호랑이가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큰일이 났냐고 물어봤어요.

-한 마디로 줄인다면?

-호랑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말 찾기를 하며 말로 사건의 뼈대만 찾기를 합니다. 이 공부 가 쌓이면 아이가 대체로 줄거리 정리하는 것을 곧잘 합니다. 물론 오랜 시간 공부를 해야 하고, 아이마다 다르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대로 줄거리 정리가 되는 아이들은 사건의 흐름을 따라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건의 흐름을 쫓아 가지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대체로 책의 내용도 차분히 정리되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생각이 매우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서 전체의 느낌으로 뭉뚱그려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슬펐다'하고 표현하던 것을, 이야기를 중요한 사건으로 몇 개 나누고 그 사이 사이에 끼어들어있는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느낌이 좀더 구체화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우의 전화 박스’를 읽고

심은빛(부천신도초3)

여우의 전화박스는 무엇보다 엄마여우가 아기여우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 잘 나온 책이다. 누구나 찡한 마음이 생기는 책이었다.

엄마 여우는 아기 여우와 즐겁게 지냈다. 그런데 아기 여우가 시름시름해졌다. 그러다 싸늘해졌다. 나는 그때 제일 울 것 같았다. 내 목은 막혀있던 것 같았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찼고 너무나 슬펐다. 하지만 엄마여우보다는 아니겠지.

엄마 여우는 어느 날, 해질녘에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어디서 불빛이 비쳤다. 가보니 거기에는 전화박스 안에서 사내아이가 엄마와 통화를 하였다. 사내아이가 하는 말에 엄마 여우는 아기여우가 하는 말처럼 받아들이며 말을 하였다. 나는 엄마 여우가 쓸쓸 할 것 같은 마음이 갑자기 너무나 많이 생겼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지만 아기 여우라도 있으니 세상을 즐겁게 보냈는데 아기 여우마저 세상을 떠났으니 쓸쓸 할 것 같다. 엄마 여우의 슬픈 마음은 아무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니까. 엄마 여우가 아주 슬프다는 것만 느끼지 얼마나 슬픈지는 모르겠다.

엄마 여우는 언제나 전화박스에 갔다. 근데 어느날 사내아이가 도시로 간다하였다. 물론 엄마 여우는 슬프지만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있었다. 남편 여우, 아기 여우, 이제는 사내아이까지 가버리니 엄마 여우는 얼마나 슬플까? 사내 아이의 어머니는 아파서 서울 종합병원에 있다.

나는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슬프고 마음이 찡하다. 엄마 여우가 옆에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슬퍼하지 마세요. 아기여우는 언제나 마음 속에 있어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 지옥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날거예요. 그러니 아기 여우를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고 씩씩하게 사세요.”

진정한 친구

‘내 친구 용우’를 읽고

심은빛(부천신도초 4)

‘내 친구 용우’는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라는 책 가운데 있는 짧은 이야기다.

용우는 아주 소심한 성격의 아이다. 친구들이 말을 시켜도 이상한 웃음으로 말을 넘겼다. 그 때까지만 해도 성진이는 용우와 어울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6교시에 가방을 싸고 있던 성진이에게 선생님이 용우의 공책을 갖다 주라고 하셨다. 용우네 집은 엄청 크고 화려했다. 용우네에는 상장이 뽐내듯이 있었다. 근데 그 중에 정승우라는(용우의 형) 이름이 많았다. 용우 엄마는 용우에게 바보한테 구는 태도처럼 굴었다. 성진이는 용우에게 공책을 주고 집을 나왔다.

나는 용우 엄마가 용우에게 구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보통 엄마들이라면 자신의 아들에게 힘주는 말을 해야지, 힘 빠지는 말을 해 줘야 할까? 우리 엄마가 용우 엄마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내가 만약 용우였다면 나도 당연히 소심할 것이다. 어쩌면 모든 사람을 영원히 증호(증오)하며, 마음에는 어머니란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머니는 딸, 아들에게 꿈을 꾸게 키워주는 것이 그 많은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소심한 성격은 거의 주위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것 같다. 나도 용

우처럼 으리으리한 집에서 살고 싶었다. 그렇지만 역시 가족과의 정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줄임-시계 분실 사건에서 용우가 누명 씌) 난 진짜 용우가 바보같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진이는 민식이와 태식이에게 용우한테 사과하라고 했다. 결국 민식이와 태식이는 용우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성진이는 용우와 친해지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우와 성진이가 같이 가던 중에 어떤 아이들이 둘한테 사귀냐고 말했다. 성진이와 용우는 화를 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성진이를 쳤다. 그래서 성진이가 넘어지다가 꽃병을 깨버렸다. 그러자 그 앞 반 선생님이 성진이를 범인으로 생각했다. 그것을 본 용우가 우물쭈물 그 이야기를 말했다. 그렇지만 용우의 우물쭈물한 말을 못 알아들은 선생님은 용우에게 화내며 성진이에게 손을 들고 서 있으라고 하였다. (줄임)그러자 성진이가 용우에게 “그래도 친구라고.”라는 말을 했다. 역시 어떤 상황에도 우정은 있구나. 아무튼 실제 세계에도 성진이 같은 아이가 많아야 할 텐데. 그리고 그 앞 반 선생님도 이해 못 하겠다. 제대로 밝혀내야지. 성진이가 말을 못한 이유를 안다. 선생님이 안 믿으시기 때문이다.

은빛이는 저학년 때부터 자기 생각을 편하게 쓰기, 줄거리는 말로 해 보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쌓여서 줄거리 사이에 있는 자신의 느낌 잡기를 해보니 위의 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어서는 자기가 쓴 글에 자기 제목 붙이기도 해 보았구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고학년의 독서감상문 쓰기 - 꼼꼼히 따져 읽기 먼저 합니다.**

고학년 아이들도 독서감상문을 즐겁게 쓰려면 책을 재미있게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책을 꼼꼼하게 따져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학년 때에는 수동의 자세로 책을 읽었다면 고학년이 되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책을 읽어야 합니다. 독서감상문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는 글인데, 자신의 생각이 많으면 쓸 거리도 많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 독서감상문을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에 앞서,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왜?’의 문제와 ‘과연 그럴까?’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꼼꼼히 따져 읽는 《내 짝꿍 최영대》

이성원(광남 5)

이 책에 나오는 최영대는 반에서 놀림 받고 구박 받는 아이이다. 말도 잘 못하고, 하는 행동도 바보 같고 웃도 더럽고 얼굴도 께죄죄하다. 이런 영대가 안쓰럽다. 왜 이런 모습으로 학교를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대를 놀리는 아이들도 잘못했다고 생각된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놀림 받고 구박을 받는 아이가 된다. 자신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왜 모자라고 바보 같은 아이를 놀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아이들이 수학여행에 가서 선생님에게 한 번 혼나고 영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로 바뀐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좀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요새 아이들은 한 번 혼 좀 났다고 180도 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피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가 좀 심하게 과장을 해서 쓴 것이 아닐까 싶다.

끝부분을 보면 영대가 아이들에게 구박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지낸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영대가 행복해 보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선생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내 짝꿍 최영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주고 있지만 《까마귀 소년》과 비교해서 꼼꼼히 따져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이 책 내용과 비슷한 책으로 일본 사람이 쓴 《까마귀 소년》이라는 그림책이 있다. 땅꼬마 까마귀 소년은 1학년 입학해서부터 5학년까지 철저하게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따돌림 당하며 혼자 외롭게 지낸다. 혼자서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디며 지내는지 잘 나와 있다. 6학년때 이소베 선생님이 새로 이 학교에 전근을 오면서 까마귀 소년의 삶이 바뀐다.

이소베 선생님은 까마귀 소년의 그림과 글 등을 벽에 붙여놓고 칭찬을 해주었다. 대화도 많이 했다. 6학년 마지막 학예회에 까마귀 소년이 나와 여러 가지 까마귀 소리를 들려준다. 그리고 이소베 선생님은 말씀해주셨다. 그 동안 땅꼬마가 어떻게 해서 그 소리들을 배우게 되었는지.

아이들은 길고 긴 6년 동안 땅꼬마가 따돌림을 당하면서 외롭게 지냈을 시간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땅꼬마를 못살게 굴었는지를 생각하면서 울었다. 어른들조차 눈물을 흘치면서 참 장한 아이라고 말했다. 그 후, 사람들은 땅꼬마를 까마귀 소년이라고 불렀다.

마지막에 까마귀 소년은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의젓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에 비하면 내 짝꿍 영대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여 아쉽다. 횃바람을 불며 산골 마을로 돌아가는 까마귀 소년처럼 영대도 당당하게 빛나는 인물로 그려질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래도 영대가 행복해졌다니 다행이다.

친구를 따돌리던 아이들이 반성을 하여 그 친구를 감싸준다는 이야기는 분명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도 그것일 것입니다. 대부분 저학

년 아이들은 이 동화를 읽으면 ‘맞아, 맞아. 친구를 왕따 시키면 안돼. 그리고 잘못을 뉘우친 아이들은 정말 착한 아이들이야. 나는 친구를 따돌리지 않을 거야.’ 하면서 감동을 합니다. 책을 읽고 깨달은 점, 혹은 배워야 할 점을 확실히 얻게 되지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성원이 말대로 선생님한테 한번 혼났다고 과연 아이들이 180도로 바뀌는가요? 성원이는 ‘내 짝꿍 최영대’를 읽은 뒤, 마냥 감탄만 하지 않고 그것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현실감이 떨어지니까 설득력도 없고 ‘에이, 시시해. 동화니까 이런 거야.’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까마귀 소년’과 견주어서 최영대의 결말이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내 짝꿍 최영대’에서 주인공은 최영대이고, 이야기의 초점은 최영대에게로 모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잘 따지고 보면 주인공은 최영대이지만 작가가 바라보는 인물은 영대를 놀리던 아이들입니다. 물론 영대는 힘이 없고 약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것이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이 ‘싫게 우는 것’이고, 못된 짓을 하던 친구들은 금방 반성을 하는, 착한 아이들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영대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잘못을 뉘우친 그 친구들과 헤어지면, 영대는 다른 아이들에게 다시 따돌림을 당할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까마귀 소년’은 당당하게 바뀝니다. ‘내 짝꿍 최영대’에서는 선생님이 반 친구들을 야단치고, 그래서 반 친구들이 바로 반성하지만(이 부분에서 현실감이 떨어지지요), ‘까마귀 소년’에서는 선생님이 진심으로 땅꼬마를 사랑하고 인정해 주어, 땅꼬마가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까마귀 소년’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책을 견주어 읽어 보고, 생각할 거리를 잘 찾는다면 훌륭한 독서감상문이 나올 것입니다. 교사가 할 일은 아이들이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자극을 주고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론 거리로 충분히 토론을 하고 난 뒤 글을 쓰면 좋은 글이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로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점을 찾아내고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간다는 뜻입니다. 성원이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길고도 긴 장편 동화**

위에서 예로 든 ‘내 친구 용우를 읽고’(심은빛)처럼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줄거리를 간추리며) 글을 쓰다가 어느 지점에서 자신의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쓰는 방법도 있지만, 긴 장편 동화의 경우에는 아래의 글처럼 인물 중심으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하면서 책의 내용을 떠올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몽실 언니》를 읽고 알게 된 것
모든 일에는 그 까닭이 있다 / 한상준 (광남 6)

나는 몽실언니라는 책을 읽었다. 머리말에 모든 것에는 무언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했었다. 밀양댁이 정씨를 떠나 김씨에게 간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 정씨는 안돌아오고 배고프니 김씨에게 간 것이었다. 정씨가 볼 때는 화나겠지만 그런 일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씨가 부산에 있는 자선병원에 있을 때 몽실이가 빵을 사는데 빵을 뺏은 아이들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 너무 배가 고프다 보면은 이성을 잃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법이다. 따라서 나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난 인민군 청년과 최금순 언니가 마음에 들었다. 인민군 청년은 도와주려고 한 것을 들켰다면 사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죽음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찢어 태워준 그 용기가 참 대단하다. 자기의 목숨을 누가 주고 싶겠는가! 그리고 최금순 언니도 훌륭하다. 낯선 아이에게 자기 식량을 나눠주는 것도 힘들 것이다. 최금순 언니도 싸우는 여군이다. 그럴려면 배를 든든히 채우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가난하고 처음보는 몽실이에게 자기 식량을 나누어주니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과연 쉽게 식량을 줄 수 있을까? 아마 힘들 것이다. 그래서 난 최금순 언니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또 난 최씨네도 정말 착하다고 생각한다. 원래는 몽실이만 가는 것이었는데 난남이까지 허락을 하였다. 그리고 절대로 못 살게 굴지 않았고 떠날 때는 여러 가지를 선물로 주었다. 최씨네 집은 넉넉한 편이다. 거의 그런 집은 이기주의자들이 많아서 난남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씨네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주었다. 만약 욕심쟁이었으면 밥만 축낸다고 미워하고 쫓아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잘해주었다는 것은 그들이 착하다는 증거다. 그 시절 그렇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돕는 부자 가정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잘해주었으니 정말로 착하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인민군에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조건 누군 좋다, 누군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나쁜 짓을 한 사람도 그 나쁜 짓을 하게 만든 것이 있다는 것이다. 난 그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쁘다고만 알았는데 이 책을 읽고 그 점을 크게 깨달았다. 정말 이 책은 좋은 것 같다.

상준이는 책을 읽고, 어른들도 생각하기 힘든 삶의 진리를 깨달은 듯 합니다. 책의 머리말에서 모든 것에는 무언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써 있는 것을 읽었고, 책을 읽으며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다 보면, 책을 읽는 것으로 그쳤을 때와는 다른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 ‘몽실 언니’를 그냥 이야기로만 읽고 지나쳤다면 그 책을 기억할 때 그저 몽실이 6.25를 겪으며 고생한 이야기 정도로만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쓰려면 좀더 골똥히 생각하게 되고,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야말로 책을 읽는 목적임과 동시에 독서감상문을 쓰게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준이는 살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혹시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삶이 평화롭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글쓰기**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아이의 독서감상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수 (광남 6)

아마도 재작년일 것이다. 몽실 언니에 대해 독후감을 썼던 적이……. 그때까지만 해도 ‘몽실 언니’는 그냥 읽기 어렵고 6.25 때의 아픔을 깨닫게 해주는 책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몽실 언니를 다시 한 번 더 읽게 되었을 땐 ‘전쟁’이라는 큰 이야기보다도 작은 주제라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몇몇 줄에서 조금씩 공감이 가고, 몽실이와 조금씩 다른 나를 찾아볼 수 있었다.

우선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곳이 ‘남주’와의 관계였다. 남주와 몽실이는 정말 정말 좋은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난남이와 남주의 동생이 싸우고 있을 때 몽실이는 자신도 모르게 남주의 동생을 밀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남주는 오해를 해 몽실이에게 화냥년의 딸은 겉과 속이 다를 거라며 평소의 남주와는 다르게 몽실이에게 대하였다. 그때 나는 ‘친구’란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기 동생 안 좋으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웬지 남주가 요즘 세상에 정치인들과도 다를 게 없었을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몽실이도 너무 불쌍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건데 오해 받아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길 들으니 말이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비슷하기 보단 나는 오해를 받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풀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풀릴 때까지 아주 괴로워하며 지낸다. 그런데 몽실이는 변명을 하기도 했지만 잠잘 때만 기억을 들추었다. 그런 식으로 나와 몽실이는 달랐다. 그래도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을까?

정씨 아버지가 항구 도시에 무료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부유한 사람들만 먼저 치료를 받는, 아주 불공평하고 안 좋은 상황을 몽실 언니는 보게 된다. 내가 몽실 언니였다면 몰래라도 그 차에(부유한 사람) 돌이라도 던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세상은 그럴다는 걸, 부유층이 먼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도……. 아마 정씨 아버지가 죽은 이유도 그런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나는 잠시, 아빠가 한 순간 앓다가 억울하게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신다면 어떨지 생

각해 보았다. 그렇게 몽실이처럼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할지 걱정이 앞서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아빠가 보고 싶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원망스럽고 안 좋은 세상에도 좋은 사람들은 있다. 몽실을 도와준 인민군이다. 보면 죽여야 하는 적을, 안 좋은 상황도 몽실을 위해 어려운 일을 한 착한 사람들 …… . 정말 바라는 건데 그 인민군과 몽실이가 다시 만났음 좋겠다. 작가께서 개정판을 내면서 그 부분을 넣을지 고려하시다가 그냥 넣지 않으셨다는데 너무 아쉽다.

몽실이는 위대한 아이다. 엄마 두 분도 돌아가시고 아빠도 돌아가시고 절음발이, 거기다 배다른 난남이……. 다른 사람보다 몇 개 더 많은 고비를 힘겹게 넘으며 기덕이의 엄마가 되기까지 나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길을 몽실이는 걸어왔다. 나는 몽실 언니의 배다른 동생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난남이보다 더 잘 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또 몽실이에 대해 더 알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고통을 보며 얼마나 아팠을 지, 남주에게 얼마나 놀랐을지, 난남이와 따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영득이와 영순이에게 얼마나 미안할지, 내가 겪어보지 못한 값비싼 경험을 작가 ‘권정생’ 덕분에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재밌고 가슴 아프다. 이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지어주신 권정생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더 이상 몽실 언니 같은 가슴앓이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인민군과 몽실이가 만나길 바라면서…….

(2004. 1. 15)

은수는 책의 내용 가운데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싸움이 인상 깊었나 봅니다. 전체를 놓고 볼 때, 남주와 몽실이의 다툼은 작은 에피소드에 그칠지 모르지만 은수는 자신의 경험이 떠올랐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히 썼습니다. 또한 책 속 주인공의 입장만 되어본 것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의 입장도 되어보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어서 작가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도 했네요. 은수의 글을 읽으니 은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이렇듯, 독서감상문이란 정답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을 쓰는 것이 독서감상문입니다.

***비판적 사고로 책 읽기의 예**

‘무지개 물고기’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반짝이는 은비늘 때문에 책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래서인지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은비늘이 더욱 빛나 보입니다. 무지개 물고기가 자신이 아끼는 은비늘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이 책의 주제는 ‘나누는 삶,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

다. 그럼 한번 꼼꼼히 따져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줄거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무지개 물고기>의 줄거리

아주 아름다운 은비늘을 가진 무지개 물고기가 있었다.
젠체하며 다른 물고기와 놀지 않았다.
파란 꼬마 물고기가 비늘이 정말 멋지다며 너한테는 많으니 하나만 달라고 한다.
무지개 물고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주지 않자, 친구들에게 일러바친다.
그 뒤로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와 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쓸쓸한 물고기가 되었다.
어느 날, 무지개 물고기는 불가사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
자기가 예쁜데 왜 아무도 자기를 좋아하지 않느냐고.
불가사리는 문어 할머니를 찾아가라고 한다.
동굴 속 문어 할머니는 파도가 '너의 이야기를 다 전해 주었다'는 말과 함께
비늘을 다른 물고기에게 하나씩 나누어주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가 되진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한다.
무지개 물고기가 '싫어...'하는 말을 꺼내려는데 문어 할머니는 먹물을 뿌리고 사라진다.
그런데 파란 꼬마 물고기가 다시 나타나서
"무지개 물고기야, 제발 화내지 마. 난 그냥 작은 비늘 한 개만 갖고 싶었을 뿐이야."
라는 말을 하고, 무지개 물고기는 마음이 흔들린다.
그래서 무지개 물고기는 꼬마물고기에게 하나를 나누어 준다.
그 뒤로 기분이 묘해지는 것을 느낀다.
오래지 않아 다른 물고기들도 무지개 물고기 주변으로 몰려들고
무지개 물고기는 비늘을 뽑아서 나누어 준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물고기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제야 친구들이 무지개 물고기에게 같이 놀자고 한다.
무지개 물고기는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헤엄쳐 간다.

아래의 글을 읽기 전에 반드시 책을 먼저 보시고, 스스로 생각할 거리를 찾아보고 어떻게 따져 읽을지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1. 무지개 물고기는 착한 물고기인가?
2. 파란 꼬마 물고기는 왜 은비늘을 달라고 했는가?
3. '빛나는 은비늘'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4. 문어 할머니의 상담 태도와 조언에 공감하는가?

5. 비늘을 주지 않아 무지개 물고기를 따돌리던 파란 꼬마 물고기가 또 다시 비늘을 달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가?
6. 무지개 물고기를 따돌리던 다른 물고기들이 비늘을 나누어주자 그제야 함께 놀자고 하는 것은 어떠한가?

대체로 아이들은 무지개 물고기가 착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니 ‘자신이 아끼는 은비늘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무지개 물고기가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행복해졌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내 것을 기꺼이 나누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것이 곧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나눔의 미학’이라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나눔의 미학’을 작가가 제대로 잘 풀어내고 있는 걸까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무지개 물고기>를 이렇게 빗대어 보았어요. 위에 적은 줄거리를 따라 적은 것입니다.

아주 돈이 많은 돈만 아줌마가 살았다.
 동네 아줌마들은 돈만 아줌마를 아주 부러워했지만
 돈만 아줌마는 전채하며 함께 놀지를 않았다.
 어느 날, 앞집 톨이 엄마가 돈 좀 달라고 한다.
 당신은 돈이 많으니 조금 줘도 괜찮잖아, 하는 말과 함께.
 돈만 아줌마는 버럭 소리까지 지르며 싫다고 한다.
 톨이 엄마는 어찌나 마음이 상했던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그 일을 일러바친다.
 그 뒤로 돈만 아줌마는 왕따가 되었다.
 돈만 아줌마는 이제 쓸쓸해졌다.
 그래서 동네 이장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한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하면서..
 그런데 동네 이장은 소문을 들어서 그 사실을 미리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장님은 왜 돈만 아줌마가 왕따가 되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고민하지 않고
 해결책만을 툭 던진다.
 '동네 아줌마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전처럼 부자 되진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행복해질 거다.'
 돈만 아줌마는 싫다고 말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장님은 더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획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린다.
 돈만 아줌마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때, 톨이 엄마가 다시 나타난다.
 자신이 돈만 아줌마를 왕따 시킨 것은 까맣게 잊었는지 또 살랑거린다.
 '돈만 아줌마. 제발 화내지 마요. 난 그냥 당신의 돈 조금만 갖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돈만 아줌마의 마음이 좀 흔들린다.
 에이, 조금인데 뭘... 이 정도는 없어도 괜찮을 거야.

돈만 아줌마는 돈을 찌끔 떼어서 준다.
 푼이 엄마는 몹시 좋아하며 돌아간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돈만 아줌마는 기분이 묘해지는 것을 느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온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몰려든다. 자기들도 돈을 조금 갖고 싶었으므로.
 돈만 아줌마는 조금씩 다 나누어준다. 나누어 줄수록 기쁨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제 돈만 아줌마는 다른 아줌마들과 똑같은 정도의 돈만 남게 되었다.
 그러자 동네 아줌마들이 돈만 아줌마를 불러냈다.
 '돈만 아줌마, 이리 와요. 우리랑 함께 놀아요.'
 돈만 아줌마도 기분이 좋아서 '그래요, 곧 갈게요.'하며
 동네 아줌마들과 함께 우르르 찜질방으로 몰려간다.

이렇게 빗대어 보니 어떨까요? (물론 이렇게 빗댄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빗나는 은비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비늘'의 자리에 '돈'말고 다른 것으로 빗대어 볼까요? 예를 들어 '비늘'이 상징하는 것에 '지혜'를 넣어보면,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혜로운 물고기가 잘난 체를 한 다거나 친구들이 왜 자신을 따돌리는지 모르지는 않겠지요. 다시 '지식'을 넣어보지요. 똑똑한 사람이 잘난 척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너 강의 좀 해라. 수강료는 없다. 너는 똑똑하니까 괜찮잖아.' 이렇게 강요를 해요. 싫다고 하면 따돌리고, 또 한번 강요하죠. '너의 지식 좀 줘.' 그래서 강의료도 없이 열심히 강의를 하니까 그제야 같이 놀자고 하지요. 그런데 사실 지식은 돈을 안 받고 다른 이에게 퍼부어도 남아있는 것이지요.

꼬마 물고기는 왜 비늘을 달라고 하지요? 단지 예뻐서 갖고 싶다는 것 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까닭이 없지요. 예를 들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부자에게 '지금 아버지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나에게는 지금 꼭 돈이 필요해요.' 하는 것과 '너는 돈 많잖아. 조금 줘도 표도 안 나겠네. 그러니 좀 줘.' 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꼬마 물고기는 일방적으로 네가 가진 것을 달라고 하더니, 안 주니까 따돌리죠. 그리고 자기가 따돌렸던 것은 생각도 안하고 다시 한번 살랑거리면서 달라고 강요하죠. 이건 사정이나 호소가 아니라, 미소를 가장한 강요라고 생각해요.

문어 할머니도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다면 무지개 물고기에게 왜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지, 해결책만 던지면 되는 것일까요?

친구들도 좀 웃기지요. 무지개 물고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니까 함께 놀아주잖아요.

물론 무지개 물고기가 혼자 체한 것은 결코 잘한 것이 아니지요. 가진 자는 분명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진 것이 돈이 되었던 지식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그러나 ‘네가 가진 것을 내 놓아라’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예를 들 수도 있지요. 자선사업가들이 기업에 찾아가서 기부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기업이 기부를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 기업을 비난하고 다닌다면 과연 옳은 걸까요? 그 기업이 속상해서 기부를 하니까 그때서야 함께 놀아주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에는 반드시 갈등구조가 필요합니다. 그 갈등 구조가 글 속에 강하게 드러나든, 숨겨져 있든. 무지개 물고기에서의 갈등 구조는 비늘을 안 주니까 왕따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것보다는 비늘을 달라고 했을 때, 무지개 물고기가 싫어, 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갈등이 고조되어야지요. 안 주니까 왕따시키는 과정으로 획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싸움이 고조되고 싸우는 과정에서 둘이 해결점을 찾아야지요. 그냥 전지전능한 ‘문어 할머니’라는 인물을 내세워서 해결책만 던져주어서는 안 되지요. 그 해결책으로 문제가 해결되나요? 물론 책에서는 해결이 되었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해결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문제를 또 토론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좀더 넓게, 깊게 확장시킬 수 있겠지요.

***글을 마치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독서감상문이란 책을 읽고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글입니다. 독서감상문을 즐겁게 쓰려면 먼저 책을 재미있게 읽어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아이들과 생각 거리를 찾아내어 토론을 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야 결과물로 좋은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인물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기도 하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아닌 인물을 내세워 글을 쓸 수도 있고, 흔히 하는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 읽고 비판적 사고로 문제점을 찾아내어 자신의 생각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방법론입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즉, 독서감상문 쓰기에는 형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독서감상문을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찢찢 매는 아이들에게는 또래 아이들의 보기글을 읽어주는 것을 권합니다. 틀에 박힌 독서감상문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써 내려간 또래의 글을 읽어주면, 아이들은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 ‘별 것 아니네.’하는 기분으로 조금씩 글을 써내려 갈 것입니다.

독서감상문 한 편을 가지고 아이의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지 마세요. 독서감상문은 글쓰기 실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자라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모나 교사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아이가 어디쯤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것, 그리고 힘을 잃지 말라고 용기를 주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